

“원효 스님 교리논쟁 회통 불교대중화”

‘원효의 대중교화와 사상체계’로 올해의 논문상 받은 남동신 교수

원효 스님(617-686)의 화쟁(和諍)이나 일심(一心)사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 한 논문 ‘원효의 대중교화와 사상체계’가 한국사상학회에서 제정한 ‘올해의 논문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동신 교수(덕성여대)는 논문을 통해 “원효 스님은 7세기 신·구역(新·舊) 불교간의 교리 논쟁을 회통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상체계를 수립했고, 그것을 토대로 거사불교를 지향하는 불교 대중화를 실현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원효 스님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민족적 자부심만을 고취하는 인물 연구인 점과 비교해 원효 스님의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남 교수는 먼저 인도에서 수학하고 중국에 돌아온 현장 스님(602-664)의 행보

에 주목했다. 인도불교를 배우고 귀국한 현장 스님은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중국에서 번역된 한문 경전의 오류를 지적하고 새로운 번역(新譯)을 시도했는데, 이때부터 동아시아 불교계에서는 신·구역(新舊譯) 불교간의 교리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구역은 구마라집의 번역을 통칭한 것으로, 당시 현장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의 본 뜻을 훼손시킨 의역이 많다는 이유로 구역 경전 자체를 부정했다.

남 교수는 “신역과 구역 불교간의 갈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사상을 찾는 과정에서 원효 스님의 화쟁이나 일심사상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교수는 “스님은 이 사상을 현실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속불이(僧俗不二)의 거사불교를 지향했다”고 말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일심 사상에는 인간



△본에 넘치는 상을 받게 됐다. 더 열심히 연구하라는 재촉으로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힌 남동신 교수.

중심의 세계관, 평등한 인간관, 이타적 인간관계가 내포되어 있기에, 전래의 무교가 지닌 신(神) 중심의 세계관, 차별적인 인간관을 극복한 새로운 사유체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남 교수는 “원효의 화쟁이나 일심사상은 <기신론>에 의해 철학적 토대

가 구축되었고, <금강삼매경>에 의해 실천성을 부여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화엄경>에 의해 완성됐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결론에서 “일심(一心)으로 돌아가, 중생들과 함께 나누는 데 일생을 바친 원효의 삶은 많은 ‘해석의 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며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좁히고자 하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사상학회 회원 논문 심사에 참가한 최병현 교수(서울대)는 “원효를 연구한 논문과 저술은 700여 편 가량이지만, 겨우 원효 사상의 윤곽을 그릴 수 있을 정도”라며 “역사적 관점에서 원효 스님의 사상을 배경을 추적한 남 교수의 논문은 원효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84년 창립된 한국사상학회는 매년 주요 논문을 선정, 수상해 왔다. 남동신 교수의 수상식은 12일 오후 4시 이화여대 인문관 108호실에서 열렸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해상교류 활발할때 불교부흥

구법의 바닷길 · 글

조영욱 <동국대 교수>

구법승은 법을 찾아 어느 곳든지 마다하지 않는다. 길이 있으면 따라 가고, 길이 없으면 개척하면서 길을 낸다. 우리가 아는 한 신라의 해초 스님은 세계에서 가장 먼 길을 여행한 최초의 구법승이다. 구법승례를 성공적으로 마친 분들이야 말할 것이 없지만 구법행각에 올랐다가 후세에 그 이름조차 전하지 못하고 잊혀져 갔을 개척의 객이 된 분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북쪽 신종 원종연간에 양경(楊景)이 고려에 사신으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귀국하여 판교

당나라 이전 왕래 찾아

진에 해신묘를 세울 것을 주청하자, 소동파는 시를 지어 ‘지남산 삼한(三韓)에 사신가가 물고기 밥이 된 자 얼마였는가? 돌아와 신사(神祠)를 지어 못 상인들로 하여금 분주히 활동하게 하도다. ...’ 하여 바다 길이 얼마나 험난하였던가를 알게 해 준다.

우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의 해상세력과 불교의 성쇠는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는 우선 산동성(山東省) 담사지역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쉽사리 추정할 수 있다. 우리가 답사한 한국관련 불교유적을 정리해 보면 첫째 당(唐) 이전에는 의상대사가 경유한 동주와 적산법화원이 있는 북부 연해지역이 교섭의 중심지였고, 둘째 송(宋) 이후 대각유사가 상륙한 판교진 이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그리고 셋째 조선시대 구법승 만공 스님이 주석한 태산 등으로 그 역사적 추이를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 북부의 등주로는 한중교류에 가장 일찍부터 이용되었던 항로로서 의상대사와 장보고 선단이 내왕하던 이 길에는 두 갈래가 있었다. 항해술이 미숙하던 초기에는 등주에서 대련쪽으로 북상하고 다시 연안을 따라 동진하여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남행하는 안전한 길이 그 하나이다. 항해술이 발달한 후기에 이르른 다소의 위험을 감내하려다 직항로를 택한 것이 또 다른 길이다. 의상대사의 구법경로나 장보고선단의 활동 무대는 물론 후자에 속한다. 등주로를 택하는 스님들의 구법행로는 주로 오대산을 비롯



한 낙양과 장안, 그리고 종남산 등 화북지역으로 향하기 마련이었다. 두 번째 송대 이후가 되면 북방민족의 위협으로 인하여 남방항로가 발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0세기 이후 이른바 정복왕조(正)의 대두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크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으니 한중관계는 전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방의 등주로는 폐쇄되고 교섭로가 남방으로 이동하는 일이 불가피하였다. 대각유사가 산동 남부연안 판교진으로 상륙했다가 주로 절강성 일대에서 구법행각을 벌이다 명주에서 출발하여 귀국하게 된 것도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이미 강남지역으로 옮겨 온 때문이었다.

세 번째 명·청(明·清) 대에 이르러 철저한 쇄국정책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의상대사의 구법경로나 장보고 선단의 활동무대가 되었던 당·중간직항로.

세계는 자유로운 해상교류의 길이 봉쇄되었다. 명태조는 “조각배도 나라의 허가 없는 바다에 띄우지 못한다.”는 선언으로 한중간의 조공(朝貢)은 오로지 육로로만, 그것도 정해진 요동로(遼東路)에 의해 서만 허가했다. 일본의 경우는 십 년에 한

明·清代 요동로만 허용

번 조공을 명주(明州, 현 영파) 일항에 한정하여 시행토록 허용되었을 뿐이다. 이리하여 원(元) 대만 하더라도 육해 양로로 빈번하던 한중 구법의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태산불교의 중흥조 만공 스님도 밀항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으니 아마도 해동의 입화구법 스님으로서의 최후의 분이며, 명·청을 통해서는 유일한 분으로 생각된다.

불법을 구하는 길은 바로 통상의 길과 일치하고, 사신의 행로와도 일치한다. 한·중간의 불교교류가 가장 왕성하던 당나라 이전까지의 동아시아 국제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활발하였다는 사실,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나옹법통 조계종까지 이어진다”

허홍식 교수 주장

“나옹 스님의 법통은 조선시대 선종의 주류를 이루었고,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에까지 그 맥락이 계승되고 있다.”

허홍식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사진)는 9일 불국사와 경복궁 영덕군이 공동 주최한 학술발표대회에서 ‘나옹선사상애와 계승사’를 발표하고, ‘나옹 법통설’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불교학계는 <불조종파지도(佛祖宗派지도)>, <해동불조원류(海東佛祖源流)>에 근거해 태고의 법통을 이어 왔다는 견



해를 통설로 받아들여 왔다. 허 교수는 나옹 법통설의 근거로 1307년에 실시된 승과 시험인 ‘공부선(功夫選)’을 들었다. 허 교수에 따르면 고려시대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화엄종, 천태종 등의 종파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이 시험을 토대로 조계종은 명실상부한 대표 종파로 떠올랐다. 당시 나옹 스님은 국사로서 이 시험을 총괄했다. 또한 허 교수는 태고 스님이

왕사의 직책을 맡아 정치적 문제에 깊이 개입했던 것과는 달리 나옹 스님은 39세에 중국에서 귀국한 이래 화엄사 등 중주 사찰의 주지를 맡아 교화에 주력했다는 데에도 주목했다.

이외에도 허 교수는 <동문산>의 기록을 근거로 조선 전기에 활발히 활동했던 환암 스님, 무학 스님 등은 나옹 스님의 법을 계승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허 교수는 결론에서 “나옹 스님이 사상에 끼친 영향과 위치를 불교계 및 성리학계와 연결시켜 거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heritage.go.kr 문화재 10만여점 검색

사이버 박물관 개관

박물관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전국 27개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와 유물을 검색하고, 3차원 입체영상까지 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문화재청은 7일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 서비스(www.heritage.go.kr)를 개통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9개 국립지방박물관, 8개 대학박물관 등 전국에 흩어진 10만여 점의 문화유산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버 박물관이 문을 연 것이다.

문화재청과 7일부터 사이버 문화재탐방 코너를 신설하는 등 홈페이지(www.ocp.go.kr)를 새롭게 개편했다. 권형진 기자



월인석보 권20 초간본 발견

훈민정음 창제이후 최초의 불경언해서인 <월인석보(月印釋譜)> 가운데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권20 초간본(사진)이 새로 발견됐다.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강순애 교수는 최근 한성대에서 열린 서지학회 학술대회에서 조선 세조 5년(1459) 간행된 <월인석보> 가운데 권20을 새로 발굴, 공개했다. 초간본으로는 17번째로 발견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권20 초간본은 모두 11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에 실린 노래 중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노래가 71곡이나 수록돼 있다. 가운데 일부는 훼손돼 있고, 뒷부분 2-3장이 빠져있긴 하나 전체적인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을 전하는 정법인장의 내용과 부처님이 전생에 행한 호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월인석보>는 세종이 석가의 일대기를 칭송한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쳐 세조가 다시 엮은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을 주석으로 달았는데, 여기에 <석보상절>의 내용에 해당하는 불경을 한글로 번역해 덧붙였다. 이 ‘월주세문’은 최초의 한글대장경인 셈이다.

이번에 권20이 발견됨으로써 <월인석보>는 권3, 5, 6, 16, 24 등 5권만 제외하고 모두 20권이 확인됐다. 권형진 기자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인 명향 - 釋氏香方 五분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분香 (오분향 - 각종 기도과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물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오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길, 영안일)

☑ 의식용 목적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힘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박석

박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 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박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 x 40cm ▷ 무게 1.5 ~ 2kg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괘를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호베개, 박하베개, 메밀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낮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 x 40cm ▷ 무게 3 ~ 4kg

※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협 100016-52-018512 예금주: 김남서

☎ 02) 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특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자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經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백사)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 455-7555